

# 특허공보를 읽는 방법(1)

## 1. 특허공보를 “효율적으로 읽는다”는 의미

• 특허공보에 기재된 기술 또는 권리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싶을 때, 그 기재내용이 단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웬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확실하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적지 않다.

이는 특허공보의 기재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단계 또는 소송단계에서도 다투어 질 것이 상정(想定)되어 있는 관계로 문장이 대체로 난해한 경향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또 많은 경우 특허공보의 기재 내용 전부를 알고 싶어 한다거나 권리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싶은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흔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신규한 기술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자신의 실험과 동일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가” 등 압축된 “궁금한 정보”를 얻고 싶을 뿐인 경우가 많다.

• 그리하여 궁금한 정보의 탐색방법이나 기재내용의 개략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특허공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읽는다”는 것(읽는 효율)은 특허공보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정보량 ÷ 읽는 시간 = 읽는 효율 → 大”**가 된다.

## 코멘트

√ 특허공보는 그 기재 순으로 읽어 나가면 충분히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으면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공보는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특허법에 기한 특허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고, 이 기술 내용과 특허권의 내용은 당연히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딱 잘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기술과 특허권의 내용을 포함한 중층적(重層的)인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중층적인 설명이 특허공보의 기재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일지도 모른다.

√ 특허공보는 대부분 특허업계의 전문변리사가 작성한 서류이므로, 모순되는 내용이 나 치명적인 기재누락은 거의 없다. 다만 기술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기재하기 보다는, 엄격히 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나아가 글자 한 개, 구두점 한 개 까지도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읽기 쉽게 기재하기 보다는 정확성과 법률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난해한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또한 특허공보를 읽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로서,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허공보는 그 특허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분야의 기술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즉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기초지식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특허공보를 읽는 방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학회지를 읽고 대충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

## 2. 효율을 높이는 2가지 요령

요령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단시간에 특허공보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읽어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 **요령 1 : 빠르게 읽는다**

전부 읽는 것이 아니라

⇒ 읽지 않아도 괜찮은 문장은 읽지 않는다.

⇒ 읽어야 할 문장만 읽는다.

### **요령 2 : 얻고 싶은 정보를 정한다**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에서 시작하는 것은 NG

막연해서는 효율의 성과가 없다.

읽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보를 언어화 한다.

즉,

⇒ 키워드를 만들고 이를 좁힌다.

위 2가지 요령을 사용해서 얻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문장만 읽는 것이 효율적인 읽기 방법이 된다.

## 코멘트

√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좋다고 하면, 조금 당돌하다고 느낀 분도 있지 않을까. “특허 공보는 불필요한 것 없이 기재되어 있어, 전부 필요하죠?”라고.....

√ 전부 읽는 것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허공보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읽고 싶은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약간의 정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점이 신규한 기술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자신의 실험과 동일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등 압축된 “궁금한 정보”만을 얻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궁금한 정보가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읽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요령 1 : “읽어야 할 문장만을 읽는다”는 점에 대하여

① **읽어야 할 문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 특허청구범위와 과제“만”

②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만이 읽어야 할 문장은 아니다.**

⇒ “만”에 유의해야 한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문장은 읽는 편이 좋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이 필독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읽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읽을 부분의 취사선택이 중요하다. 동일한 특허공보를 몇 번 반복해서 읽어 본 적이 있다면,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부분이 점점 압축되는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내용을 기억한 탓도 있겠지만, 정말로 읽을 필요가 없던 부분이 있어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알 수 있다. 읽어야 할 부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건너뛰고 읽을 수 있으므로 효율이 오른다.

나. 요령 2 : “얻고 싶은 정보를 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궁금한 정보 등에 대하여 특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데 통상 사용되는 용어(불려지는 용어)를 말한다.

특징적인 사상(事象)과 논리 등 생각하는 바가 키워드가 된다.

키워드를 정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키워드는 단어로 정하되, 될 수 있는 한 짧게 간결한 단어로 정한다.**

키워드를 문장으로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으나, 생각나는 특징이 긴 문장인 경우 아직 덜 압축하지(좁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문장으로부터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추출하여 키워드로 정해야 한다.

**2)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 한다.**

일반적이라고 말하더라도 학회지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면 충분하다.

특허공보의 기재 자체에도 특수한 용어도 있고, 무엇이 일반적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 특허공보, 학회지, 이화학계의 사전 등에서 확인되는 것이 좋다.

**코멘트**

키워드를 정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다. 처음부터 너무 단어 수를 압축하지(좁히지) 말고, 특허공보를 읽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로 좁혀가는 것이 무난하다.

### 3. 요령의 구체적 사용 3단계

◎ 요령을 사용하는 3가지 단계

요령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 다음의 3가지 단계로 발명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STEP 1 : 발명의 명칭을 확인한다.

STEP 2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을 읽는다.

STEP 3 : [특허청구범위]란을 읽는다.

소결 : 뽑은 정보를 정리한다

가. STEP 1 : “발명의 명칭”을 읽는다.

먼저 “발명의 명칭”을 읽고, 원하는 정보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명칭은 발명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칭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거의 원하는 정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명칭은 예컨대 “전자부품 및 전파발신장치”, “방장<sup>1</sup>제의 제조방법, 방장방법 및 이를 이용한 나사” 등 잘 읽으면 복수의 명칭을 열거하고 있다.

명칭은 [특허청구범위]기재에 있는 복수의 발명(기술 : 예를 들면 ‘전자부품’, ‘전파발생장치’)에서

---

<sup>1</sup> 녹을 막음

비롯된다. 이 때문에 그 발명들 전부를 기재하려고 한다면, 열기된 명칭이 되게 된다.

#### 코멘트

명칭이 열기된 기술명칭이 있는 만큼, 명세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명칭에 서술되지 않는 것은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있는 경우도 있음).

발명의 명칭이 원하는 정보분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 나. STEP 2로 간다.

#### 나. STEP 2: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을 읽는다

먼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하 '과제란'이라 한다)부터 읽는다.

과제는 특허공보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 기재되어 있다.

요령 2의 "키워드를 압축한다(좁힌다)"는, 요령 1의 "읽어야 할 부분"에서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얻고 싶은 정보에 따라 키워드는 변한다. 따라서 과제란을 읽고, 스스로 미리 준비한 키워드가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키워드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 점이다. 다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키워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특허청구범위가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발명을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발명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과제는 발명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제를 통하여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경위를 알 수 있으므로, 발명의 이해가 빨라진다.

## ☞ 추가적 기술

과제란이 장문이라면 보는 것만으로 지겹다.

그래서 장문인 경우는 아래 행부터 읽는 것이 요령이다.

맨 마지막에 과제를 정리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포인트

과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기재는 '따라서', '즉' 등 겹어에 사용되는 언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어들을 찾아 읽는 것이다

다. STEP 3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란을 읽는다.

다음으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을 읽는다.

과제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스스로 이것이 특징적이라고 생각하는 용어를 골라낸다.

아래의 예를 보면, [B약제]와 [C약제]가 있고 이들 2개의 조합이 특징적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 **【청구항 1】**

A 화합물의 알카리 고압합성방법에 있어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알카리 영역의 B약제와 C약제를 10MPa 이상으로 합성하는 제조방법

#### 코멘트

- √ 선택한 단어는 1개로 한정되지 않는다. 복수인 것이 많다.
- √ 앞서 읽은 과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특징을 뽑아낸다.
- √ 과제에 착상에 이른 경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그 부분으로부터 특징을 집어낸다.
- √ 과제에 기재가 있었던 종래의 기술 이외의 용어는 무엇인지를 청구범위를 읽으면서 집어낸다.
- √ 선택해야 할 용어가 없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조그만 표현까지 주의해서 읽는다(예 : ~에만, 복수 등).

라. 정리 : 선택한 정보를 정리한다.

STEP 3으로 읽는 것은 끝이다.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특허공보에서 기재된 발명은, 과제가 이러저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B약제와 C약제를 조합하여 이용한 것이 특징?

그리하여 선택한 용어가 특허공보의 특징이 된다.

특징만 알면, 거의 내용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요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차례차례로 특허공보를 동일하게 읽어 봐 주세요.

#### 4. 전체 읽기의 테크닉(이하 차회)